

건강한 흙은 건강한 삶의 열쇠 『흙과 건강』을 읽고

정진석(장로, 흙살리기참여연대 대표)

1945년 영국에서 출간된 알버트 하워드 경(Sir, Albert Howard)의 *Health or Disease*가 1947년 미국 판으로 *The Soil and Health* 라는 제목으로 출판된 것을 60여 년이 지난 오늘 한국에서 최병철 박사님이 『흙과 건강』이란 제목으로 번역 출판하게 된 것은 이 시대에 꼭 필요한 일이다. 왜냐하면 한국의 농업 및 농학이 나가야 할 방향을 이 책은 분명하게 밝혀주고 있기 때문이다.

대내외적으로 우리 농업은 벽에 부딪쳐 있으며 앞이 캄캄하다. UR, WTO, FTA 등 숨 가쁘게 돌아가는 국제시장의 급변하는 물결 앞에 우리 농민은 망연자실(茫然自失) 뉘이 나간 상태이고, 우리의 농학은 학문의 초점을 상실하고 농업생산 현장과 남남이 되어 버린 지 오래이다. 이러한 우리를 위하여 머나먼 영국 땅에서 이미 60여 년 전에 알버트 하워드 경을 통해 우리 농업의 위기를 넘어서 나아갈 수 있는 희망의 길을 예비해 두신 하나님의 절묘하신 섭리가 있었으니 이 어찌 감격스럽지 않은가!

이 책은 낡은 구시대의 이론이 아니다. 농업의 본질인 생명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모든 생명의 근원은 흙에 뿌리를 박고 있으므로 흙에서 유리되면 어떤 생명이든지 건강을 잃고 끝내는 파멸(죽음)에

이를 수밖에 없음을 저자는 이 책에서 예언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도 명쾌하게 제시하고 있으니 말이다.

지난 한 세기 동안 과학기술주의 문명의 극치를 이루어 낸 인류는 과학기술문명의 혜택을 만끽하기도 전에 생명의 위기 앞에 공포와 불안에 휩싸여 떨고 있다. 자연을 인간의 욕망을 채우기 위한 정복의 대상으로 삼고 자연환경의 법칙과 순리를 짓밟고 이룩한 과학기술문명은 자연을 병들게 하고 생태계의 질서를 도막토막 끊어 놓는 역기능을 초래하였다.

생명계는 자연(흙)을 집으로 삼고 그 속에서 서로 도우며 더불어 살아가도록 지음 받은 피조물이다.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는 인류조차도 예외일 수 없다. 약육강식, 적자생존의 논리는 생명계의 꺾이기만 보고 말하는 그릇된 인식이다. 하찮게 보이는 미물로부터 고등동물인 인류에 이르기까지 모든 생명체는 생명계의 거대한 순환과정에서 끝도 시작도 없이 서로 생명을 주고받으며 순환하는 상생의 고리로 끈끈이 연결되어 있는 존재들이다. 그러므로 인류는 자연 위에 특권을 지닌 존재인양 군림해온 과학기술주의문명을 이제 인류는 겸허히 반성하고, 생명의 본질 즉 창조주의 창조질서로 회귀해야 한다. 그것은 곧 생태주의문명임을 저자는 이 책에서 밝히고 있다. 생태주의문명의 핵심은 농업이며 그 농업의 핵심은 건강한 흙임을 저자는 예언하였다. 인류의 무분별한 과학기술문명은 흙을 병들게 했고 병든 흙은 점점 더 미생물과 식물, 동물을 각종 질병으로부터 보호할 수 없게 만들었으며, 끝내 인류마저 알 수 없는 질병들에 시달리며 건강을 잃고 죽어가게 하고 있는 것이다.

흙과 건강! 우리의 눈을 번쩍 뜨이게 하는 메시지가 아닌가. 사람은 누구나 건강한 삶을 최고의 행복으로 생각한다. 몸도 마음도 영혼도 건강하기를 소망한다. 우리의 건강의 뿌리를 흙에서 찾아야 한다는 새로운 깨우침을 이 책에서 얻을 수 있으니 이 책의 소중함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사람들은 건강한 삶을 위해 육신적으로는 안전한 먹을거리를 찾고 각종 질병을 퇴치할 수 있는 고도

의 의술을 찾는가 하면, 정신적으로는 수양과 도덕의 훈련, 건전한 신앙생활을 추구한다. 이와 같은 인류의 욕구를 근원적으로 건강한 흙이 풀어주고 있다는 사실을 저자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고 있다.

이런 의미에서 벽에 부딪쳐 방향을 못 찾고 있는 우리의 농업과 농학은 이제는 과학기술주의적 범주를 뛰어 넘어 생태주의적 문명을 열어가야 함을 이 책에서 찾아야 할 것이다.

이번에 평생을 유기농업 연구에 몸 바쳐 온 최병칠 박사님께서 본서를 우리 국민 앞에 번역하여 내 놓은 것은 때늦은 감이 없지 않다. 하지만 우리 농업과 농학이 새 시대에 지향해야 할 방향을 제시해 줄 것이라는 기대감에서 이 책의 출간은 시의적절(時宜適切)하다. 건강한 삶을 보증해 주는 이 귀중한 고전을 읽고 감격한 마음으로 감히 서평의 글을 몇 자 적었다. 農

- 책 명 : 흙과 건강
- 역 자 : 최병칠, 최일신 공역
- 발 행 : 환경대학교 친환경농축산물 생산연구센터
- 발행시기 : 2004년 4월 중
- 주문처 : 031-883-9607, 011-369-9067(최병칠)